

# 사납금 무려 32% 인상 ‘역주행 택시회사’

### 택시기사들 반발 속 사납금 맞추려 난폭운전...광주시민 안전 위협 회사측 “기본급 올라 불가피”...서울 등 타지역 월급제 추진과 대조

광주지역의 법인택시 회사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운영난을 이유로 사납금을 무려 32% 인상해 택시 기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납금 인상 이후 택시이용 시민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택시회사와 운전기사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사실상 두 손을 놓고 있다.

서울시 등은 오는 2021년까지 택시기사의 생존권 확보 등을 목표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월급제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지역 법인택시 회사의 사납금 인상 조치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광주시와 택시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1일자로 광주지역 법인 택시회사의 기사 회사에 매일 내야 하는 사납금(社納金)이 평균 3만 8000원씩 올랐다.

광주지역 법인택시 운전기사(하루 2교대, 최대 12시간 운행기준)는 지난해까지 하루 11만 9000원씩 내던 사납금을 이번 달부터 평균 15만 7000원씩 내고 있다. 택시사납금은 택시기사가 매일 회사에 내도록 정해진 금액이다. 당일 택시 수입이 사납금보다 낮을 경우엔 차액이 월급에서 공제되는 반면 수입이 사납금보다 많으면 운전기사의 몫이 된다. 하지만 사납금을 웃도는 실적을 내는 경우는 극히 일부라는 게 택시기사들의 말이다.

사납금이 대폭 인상된 이후 택시기사의 과속, 신호위반, 승차 거부 등 불법운행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광주의 한 법인택시 운전기사는 “안 그래도 택시기사 입장에서 돈을 벌기 어려운 구조인데, 대폭 오른 사납금 때문에 빨리 다니려다 보니 난폭운전 등 무리한 운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운전기사는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선 하루 평균 9시간 이상을 화장실도 참고 운전을 하다 보니, 친절이나 안전운행은 생각도 못한다”면서 “회사에서는 최저임금 탓에 기본급을 올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사실상 올린 사납금을 채우기 불가능해 기본급 인상도 의미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인택시회사측은 노조와 협상을 통해 사납금을 올렸으며, 기본급도 118만원에서 175만원으로 57만원이나 인상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측은 또 지난 4월 택시기사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라는 대법원 판결 때문에 사납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광주시 법인택시 조합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회사측이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이른바 ‘소정 근로시간’(임금지급을 위해 노사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4시간에서 6시간 40분으로 올리면서 인건비 지출도 대폭 늘었다”면서 “사납금 인상은 법에 어긋나지 않고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택시 업계도 버스처럼 공영제 도입까지 검토해야 할 처지”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법인택시업계와 택시 운전기사간 사납금을 둘러싼 갈등의 골은 깊어지면서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지만, 광주시는 사실상 수수방관 하고 있다.

광주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사납금 제도는 회사와 노조측이 합의 아래 결정된 부분으로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며 “회사가 공개하지 않을 경우 사납금의 구체적인 내역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한 법인택시기사는 “법인택시 회사 노조 상당수는 사측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실상 어용 노조나 마찬가지로”면서 “택시운전기사들의 반발에도 이번 사납금 인상이 강행된 이유로, 광주시가 적극 나서 사납금 인하 조치 등에 나서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광주에는 총 76곳의 법인택시 회사가 3377대의 법인 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야영장 안전기준 미준수 등 43건 적발

### 전남도 관리실태 표본 감찰

전남도는 하절기 캠핑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야영장 안전관리실태를 표본 감찰한 결과 안전기준 미준수, 관련 인-허가 부적정 등 4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해당 사·군에 처분을 요구했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표본감찰은 5개 사·군 22개 야영장을 대상으로 했으며, 안전감찰 결과 안전기준 미준수 주요 내용은 자체 정기 안전점검 미실시 3건, 비상 손전등 및 비상용 발전기(배터리) 미비 10건, 매점 내 폭죽 판매, 구급약품 미구비 등이었다. 야영장과 인접한 계곡, 급경사지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구역에 대한 출입 제한이나 안전시설 보강 등 안전관리 소홀도 4건이나 됐다. 안전 분야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실시

한 야영장 인-허가 실태 주요 부적정 사항은 불법 농·산지 전용 5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 1건, 불법 가설건축물 설치 2건, 불법 용도변경 2건 등이다. 해당 사·군에 원상복구, 고발 등의 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했다.

박종필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올해 상반기에 국가안전대진단 등 3차례 연속해 야영장 안전점검을 했음에도 현장에서는 안전기준 위반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도민의 안전을 경시하고 이익만을 우선하는 안전 분야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일부 사·군의 야영장 안전관리 실태 감찰 결과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됨에 따라 하반기에 모든 사·군으로 안전감찰을 확대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고성·속초 산불 수사 중인 경찰, 한전 본사 압수수색

지난 4월 4일 발생한 속초·고성 산불의 원인을 수사 중인 경찰이 21일 한국전력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고성경찰은 이날 고성·속초 산불과 관련해 한국전력 나주 본사와 강원본부, 속초지사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이날 한전 나주 본사의 압수수색한 경찰은 전신주 설치·점검·보수 등과 관련된 매뉴얼을 집중 확인했으며, 한전 강원본부에서는 배전 운영부 컴퓨터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 한전 속초지사는 이번이 두번째 압수수색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23일 한전 속초지사와 강원지사 등 2곳에 대해 1차 압수수색을 했다. 당시 경찰은 산불 원인과 관련한 사고 전신주의 설치와 점검, 보수 내역 등 서류 일체를 압수해 분석작업을 벌였다.

경찰은 이후 지난 6월 초 고성·속초 산불의 원인으로 지목된 한전의 전신주 개폐기 유지·보수 업무와 관련해 과실 혐의가 드러난 10여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은 증거 보강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죄질 불량 보복 운전자 법정 최고형 구형한다

### 법무부, 강력 대처 나서

법무부가 죄질이 불량한 보복·난폭운전자에게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박상기 장관이 보복·난폭운전 및 이와 관련한 도로 위 폭력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는 지시를 검찰에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박 장관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형 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관련 범죄에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16년 2월부터 급정거, 급제동, 진로 방해 등 난폭운전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 개정 이후인 2017년 1월부터 최근까지 검찰은 모두 492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죄로 처벌하고 이 중 104명을 구속기소했다.

지난 2월에도 앞서가던 차량이 급정거하자 보복하려고 차선을 급변해 상대방 차량 앞 범퍼를 들이받은 운전자 4명 구속기소됐다.

이 운전자는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10%였으며,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북구청 공무원들 ‘사랑의 헌혈’ 21일 광주시 북구청 광장에서 열린 ‘사랑의 헌혈’ 행사에서 구청 공무원들이 헌혈에 동참하고 있다.

21일 광주시 북구청 광장에서 열린 ‘사랑의 헌혈’ 행사에서 구청 공무원들이 헌혈에 동참하고 있다. /최해배 기자choi@kwangju.co.kr

## 법원 “장시호, 김동성 전처에 위자료 700만원 줘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불륜설이 불거진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씨의 전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판사 정금영)은 21일 김동성씨의 전처 오모씨가 장시호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장씨가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장씨는 이듬해 자신의 재판에서 “2015년부터 김동성씨와 교제했다”며 이 시기 자신과 함께 최순실씨의 집에서 살면서 한국동계

스포츠영재센터 설립에 참여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김씨는 같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를 부인했다.

지난해 김씨와 이혼한 오씨는 불륜설이 퍼짐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오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박진표 기자 lucky@연합뉴스

## 광양제철소 내 매립 작업 중 덤프트럭 바다 빠져 40대 숨겨

광양제철소 내 설비확장부지 매립공사 현장에서 덤프트럭 운전사가 바다에 빠져 숨졌다.

21일 오전 11시 55분께 광양시 금호동 광양제철소 내 해안(동호안) 매립작업을

하던 김모(44)씨의 2t 덤프트럭이 바다에 빠졌다. 이 사고로 김씨가 덤프트럭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후 1시 55분께 숨졌다.

한편 광양제철소 내 동호안에서는 2016년 5월 12일에도 매립 작업 중 지반이 무너져 내리면서 덤프트럭을 유도하던 신호수 강모(70)씨가 숨졌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무인발급기에 꽂힌 남의 신용카드로 승차권 발급한 대학원생

○앞사람이 깜빡 잊고 무인발급기에 넣어 놓은 신용카드로 고속버스 승차권을 발급받아 사용한 20대 대학원생이 경찰서행.

○21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A(27)씨는 지난 20일 오후 5시 25분께 서울시 서초구 센트럴버스터미널 내 무인발급기를 통해 광주행 승차권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이미 카드 투입구에 꽂혀 있

던 B(40)씨의 신용카드를 자동 결제된 승차권을 사용해 광주까지 왔다는 것.

○B씨의 경찰 신고로 광주터미널에서 붙잡힌 A씨는 “갑자기 결제가 진행돼 투입구에 있던 신용카드와 승차권을 들고 터미널 직원을 찾아갔는데 카드만 두고 가라고 해 승차권을 그냥 이용한 것”이라며 “당시엔 범죄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무안군 몽탄면 대형팬션**  
영산강 접 경관 최고 땅 49000㎡ 펜션 14동과 수영장 등. 광주서 20분. 목포서 10분. 토지상의 2천여평은 복지시설 노유지시설에도 최고임. 32억

**팬션·전원주택지**

- 영광 백수읍 백암리 서해안 조망최고 대지 등 1130㎡ 1억3천
- 완도군 청산면 신흥리 대지 440㎡ 주택 53㎡ 수영장 최적 4500만원
-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680㎡ 목포대학 인근 4500만원

**투자·매도·교환**

- 남구 덕남동 매립된 땅(담) 8232㎡ 주위조경종음 9억4800
- 남구 덕남동 (노대동 노인간담) 부근 대지 652㎡ 남향 생활편리 5억5천
- 수목장 허가지 덕남동(화순읍 세량리) 6645㎡ 조망종음 2억
- 생활적합 남구 덕남동 산 26951㎡ 건물 67㎡ 주위환경 좋음 8억
- 운암동 아파트 상가 지하 205㎡ 사무실·창고 등 다용도 은행 8천 교환 1억8천
- 서구 치평동 대형건물 중 1층 264㎡ 현공실임 다용도 가능 은행 11억 교환 22억
- 곡성군 입면 매월리 임야·전 24092㎡ 약초재배·농장 등 적합 9천만원
- 남구 월산동 월산아파트 부근 조용한 생활적합 664㎡ 2층주택 4억4천

**상가건물**

- 목포 옥암동 여관객실 27 대지 439㎡ 건평 989㎡ 국민은행 4억 매도 5천만원
- 문흥동 4층빌라 땅 410㎡ 건평 613㎡ 인접 30평(공실)과 16실 전세 1억8천 월 510. 14억
- 농성동 새 원동건물 대지 343㎡ 건평 712㎡ 1층 가계 49평은 공실 17억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특급물건**

- 요양시설 최고 영광 방성면 땅 5416㎡ 1층 477㎡ 중층 7층 환경호 은행 4억 매도·교환 8억5천
- 목포대 인근 무안청계 2층 주거지 담 4413㎡ 축원 2억4천 투자에 좋음 4억4천
- 신안군 임태면 부두서 바로 10분 독립섬 56233㎡ 독립생활에 적합 3억6천
- 도양군 대덕면 정종지 8451㎡ 도로연결 종음 울루창고 등 다용도 8억(은행4억5천)
- 나주시 남내동 상업지 959㎡ 오피스텔·호텔·소형APT적합 교환가능 12억
- 영암군 학산면 영산강접 산 97404㎡ 건평 8억4천선 하차 5억8천 매도 3천
- 나주시 다시면 광목간도로 4323㎡ 유통시설·창고 등 적합 6억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 임야

합니다.010-6834-7400

※맹지사질/신속처리※

지난 20년간 13,000여명이 수강한 명장의

### 불황기에 뜨는 부동산 경매강의

(컨설팅과 재테크)

전임강사 : 정영수 경영학박사 (부동산 전공)

- 평생교육공로 교육과학부장관상 수상
- MBC - TV 방송국 경제특강
- KBC - 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강의
- 전남대 20년 강의(전대 용봉인상 수상)
- 공무원수원, 중소기업청, 한국전력 등 150여회 이상 특강

**특 전**

자격 취득 희망시, 공인부동산발달경영관리사, 부동산분양상담사, 부동산관리분석사 등 자격 취득도록 책임지도하며 수료후 모임체 결성하여 평생지도하여 드림

▶ 강의일정 | 2019년 9월 ~ 12월 (매주) 수요일 19:00~21:00

▶ 강 의 료 | 210,000원(15주) \*선착순 50명

▶ 조선대 평생교육원

전화 062)230-7700-2(010-5613-1808)

### 장성토지매매!!

- 4층.30평Apt50채 건축부지 <1가구 전원주택지로 최고>
- 지 번 : 장성군 장성읍 안평리 648-1, 2 및 38,나대지
- 면 적 : 3,646㎡(1,104평) 읍에서 5분거리
- 환 경
- 좌측: 바로 옆 피톤치드 편백숲, 품의산책길·오솔길
- 우측: 대형블루베리농장·환상의 캠핑장·맛집
- 감정가 : 8.8억(평당 80만원)
- 매매가 : 7.7억여원(평당70만원)
- 상·하수도, 도시가스 인입 가능

문의 010-3602-3881(주인)